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남은 과제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 선정·주민투표 등

2년 안팎 소요…답보 상태 이전 사업 가속도 붙을 전망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3면)** 국가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핵심 골자로 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도 가뭄 속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남은 절차를 살펴봤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단추는 해당 지자체의 군공항 이전 건의와 이에 따른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다.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다음 해인 2014년 10월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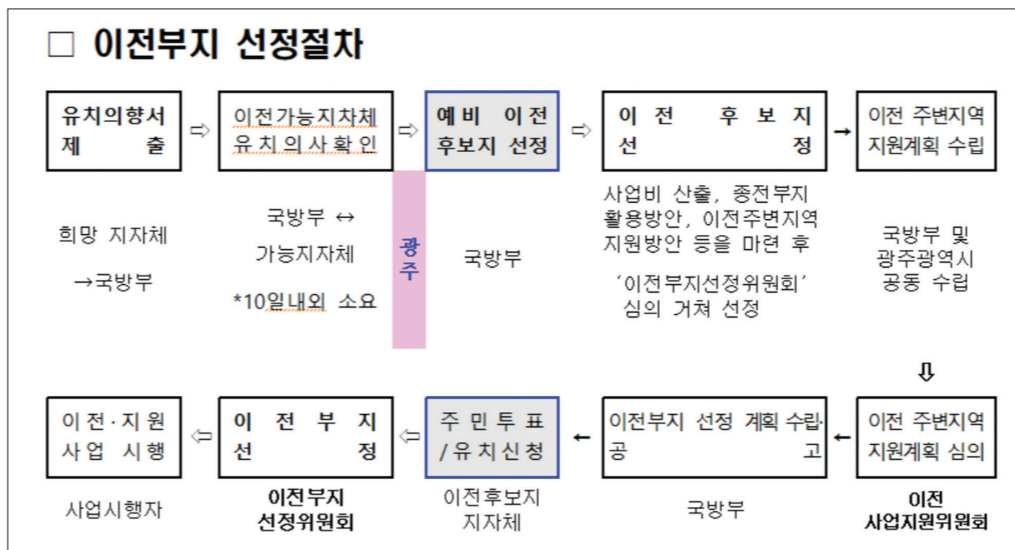
2년 뒤인 2016년 8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하다’는 국방부의 통보를 받았다.

이 시점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섰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실행 단계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절차는 ▲유치 의향서 제출 ▲이전가능 지자체 유치의사 확인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국방부·광주시 공동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 (사진=광주시 제공)

핵심인 ▲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 ▲이전 후보지 지자체 주민 투표·유치 신청 ▲이전 부지 선정 ▲이전·지원 사업 시행 순으로 이뤄진다.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이전 부지 선정까지는 통상 2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현 상황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전 단계다.

군 작전성 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유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지자체를 찾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최근 전남 함평과 영광에서 잇따라 열린 설명회가 바로 그것이다.

함평·무안·영광·해남·고흥 등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중 국방부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 절차 중 예비이전 후보지 지자체 주민 투표를 군공항 유치 찬반 투표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절차다.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뒤로한 채 유치 신청서를 접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군공항 이전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와 이전 지역에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장기간 소요,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사업대행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이슬비기자

‘천금 같은 봄비’ 광주·전남 오랜 가뭄 속 숨통 트일 듯



5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앞 사거리에서 우산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광주·전남 곳곳에 반가운 봄비가 내리면서 오랜 가뭄 속 숨통이 트였다. 연일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남부터 이날

후 2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완도 123.9mm, 진도 116.3mm, 장흥 87.2mm, 강진 73.1mm, 순천 70.2mm, 해남 69.1mm, 광양 64.8mm, 고흥 62.3mm, 목포 60.6mm, 광주 47mm, 여수 46.9mm, 영광 43.5mm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비는 6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권 20~80mm, 광주와 전남 서부권엔 10~50mm다.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비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뭄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30년 만의 제한 급수 위기에 놓인 광주 주요 식수원 저수율은 이날 오전 동백담(화순) 18.5%다. 전남 자정 기준 18.28%에서 저수율이 소폭 올랐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돗물 공급원인 주암댐(순천·조절지 포함)도 20.3%로 전남 대비 0.1%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는 수면 위에 떨어지는 비의 양만 반영된 것으로 곳곳에서 흘러온 빗물이 댐으로 유입되면 저수율이 더 오를

광역상수원·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소폭 상승 전망 함평·순천 잔물정리에 도움, 산불 위험 큰 폭 하락

전망이다. 전남 지역 다른 광역상수도 수원지인 장흥·평림·수어댐도 큰 변화는 아직 없지만 저수율이 소폭 늘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 봤다.

도는 실개천과 강을 통해 빗물이 저수지까지 유입, 저수율이 더 오르려면 최소 이틀에서 닷새 가량은 더 걸릴 것으로 봤다.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4대호(광주·나주·장성·담양호)의 저수율 역시 지난달보다는 오름세다. 이날 오전 기준 저수율은 ▲광주호 73.1% ▲나주호 36.8% ▲장성호 39.4% ▲담양호 32.6%이다. 평년 대비 각각 80.1%, 63.4%, 58.2%, 53.9% 수준이다.

한 달 전인 3월 6일 저수율은 광주호 68.9%, 나주호 36.4% 장성호 38.3%, 담양호 31.9% 이었다. 농업 용수원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저수용량이 큰 나주호를 제외하면 3월 중 잇따라 내린 봄비가 저수율에 긍정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비는 지난 3일 발생해 하루 만에 겨우 끈 함평·순천 산불의 마무리 잔물 정리에에도 큰 도움이 됐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높아졌던 산불 위험도 낮아졌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3일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나타났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전남 오후 5시 전후 전역이 ‘낮음’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처음이다. 가뭄 해소에 일부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6일 오전까지 이슬비가 내리면 비 구름대가 대부분 해소되고 당분간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봄꽃과 함께 떠나는 **2023 화순 고인돌축제** 2023.4.21.~4.30. 화순고인돌유적지 ☀️ 화순군

화순 고인돌 EDM 페스티벌 line up

🕒 4. 29. 토 18:00~
📍 화순 세계거석테마파크



박명수



원슈타인



훅(아이키)